

전북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

양오봉 전북대 총장, “대학·지역 상생 발전 디딤돌”... 대학 구성원들 글로컬대학 30 사업 유치에도 ‘한마음’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와 전북도 아차전지 실행위원회는 7일 진수당 1인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컬대학 30 사업 유치와 새만금에 이차전지 산업 특화단지 유치 기원을 위한 포럼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 총학생회 학생들은 이차전지 산업 특화단지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 전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또 총학생회 공식 SNS를 통해 전라북도의 이차전지 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계획과 관련 해택 등을 적극 알렸다.



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김관영 도지사(앞줄 왼쪽)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전북도내 대학생 3000여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럼 및 유치 결의대회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특히 전북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이날 양오봉 총장과 함께 글로컬대학 30 사업 유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큰 디딤돌이 될 사업으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 청년 학생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유치를 위한 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

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길 기원한다”며 “오늘 포럼을 바탕으로 전라북도가 글로벌 산업 발전 지역으로 나아가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2만 원광인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염원”

원광대에서도 결의대회 열려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 촉구를 위한 2만 원광인 결의대회를 7일 오후 2시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원광대를 비롯해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하 기관 및 총학생회가 뜻을 함께한 가운데 교직원과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특화단지 유치 보고에 이어 유치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전북 새만금을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국가산업단지이자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는 반드시 전북 새만금'으로 지정돼야 하



원광대학교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 촉구를 위한 2만 원광인 결의대회를 7일 오후 2시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며, RE100 실현은 세계의 무역장벽을

공활한 부지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도전과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경쟁력을 제

공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전북 새만금은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 자리 잡고 있으며,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의 혁신 모델이 될 것임을 주장하면서 새만금을 바로 세우기 위해 30년간 원광인의 마음을 모았다.

이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2만 원광인의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새만금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잇따른 투자 및 입지에 힘입어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올랐으며,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법도인 운동을 통해 새만금 특화단지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THE 세계대학 영향력 ‘국내 4위’

전북대, 거점국립대 중 2위... 기후 변화 대응 등서 높은 평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2023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국내 전체 대학 중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거점국립대 중에서는 2위다.

이 평가는 기존 성취도 평가와는 달리 대학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인 UN SDG 17개 분야에 대해 대학이 가진 역량과 사명을 가늠하는 것이다.

올해는 세계 112개국 1,591개 대학을 대상으로 △빈곤 종식, △기아 해소,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경제적이고 청정하고 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및 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 사회, △책임있는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 △평화, 정의 및 확고한 제도, △폭포를 위한 파트너십 등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매겼다.

이 평가에서 전북대는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 중에는 '산업 혁신 및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55위, '빈곤 종식' 세계 77위, '등 세계 100위권 이내'에 포함됐다.

또한 '해양 생태계 보전' 국내 1위, '기후 변화 대응' 국내 2위, '경제적이고 청정하고 에너지' 국내 2위, '육상 생태계 보전' 국내 3위, '폭포를 위한 파트너십' 국내 3위, '기아 해소' 국내 4위 등 여러 세부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컬대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대학의 행보가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로 반영된 것 같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학 변화를 주도하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인권우호적 학교 풍토 조성

오늘부터 내달 11일까지

14개 시군서 연수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의 인권우호적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해 2023년 찾아오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8일 남원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7월 1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참석 대상자를 학교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및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

과 학생·학부모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교원차위법을 통해 알아보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교육활동 보호(대응) 방법 안내 △교원차위지원센터 소개 및 교원차위지원 계획 안내 등이 다.

이와 함께 학교 사례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2023년 신실관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직무대리는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해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원차위지원센터 소개 및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해 전라북도 소속 교원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 자원봉사자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9일부터 학교도서관 학부모 자원봉사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도서관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28일까지 학교도서관 활용 초등 문해력 향상을 주제로 일반직 사서가 배치된 전주·완주·익산·남원·김제·정읍·군산 등 도내 7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진행된다.

학교도서관 학부모자원봉사자는 학교도서관 자료 정리 및 열람·대출 등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

사자로, 현재 도내 135개교에서 1,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우리 아이 문해력 어떻게 키워 줄 것인가?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력·어휘력 향상 △독서와 글쓰기가 행복한 아이를 자녀를 위한 도서관 및 책교육 활용 방안 등이 다.

이시기 문해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 봉사자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과 봉사활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육부-연구재단 ‘에코업’ 참여대학 선정

비전대, 매년 10억2000만원씩 총 40억8000만원 지원받아 스마트 환경산업 선도 6대 분야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전주비전대학교(우병훈 총장 직무대행)는 지난 4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인 ‘에코업(業)’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융합·개방·협력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에코업(業) △이차전지 △항공·드론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차세대통신 등 5개 첨단분야에서 컨소시엄(대학)을 선정했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는 매년 10억 2,000만원씩 4년간 40억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스마트 환경산업을 선도할 에코업 6대 분야 수요 맞춤형 인재인 Green Technology Innovator'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에코업(業)’ 컨소시엄은 친환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문

(전공) 간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교원 및 학사제도 유연화 △지·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공유 플랫폼 구축 △기업 참여 프로젝트(Wemoot)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진행할 김영주 교수(지적도목학과)는 “전주비전대학교는 공유대학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에코업(業)분야의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라며 “이를 통해 스마트환경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이대용 교수 에너지혁신인재포럼 ‘우수’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가 이끌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이대용 교수(대학원 풍력에너지학과)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한 국에너지기술개발사업) 주관으로 개최된 2023 에너지혁신인재포럼 성과발표회에서 과제운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혁신인재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략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60여 개 대학들과 IC와, 두산에너지리터 등 국내 대표적 에너지기업들이 모여 우수 성과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2023 에너지혁신인재포럼에서는 과제운영(교과목 프로그램, 산학연 프로그램) 분야와 연구성과(우수논문) 분야에서 총 7명의 우수상 대상자들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 이대용 교수는 과제운영(산학연 프로그램)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대용 교수는 “풍력 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 과제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8개 연구실과 10개의 전문기업들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로 생각한다”며, “해상풍력 지지구조 분야 국내 우수인력 양성과 핵심 요소기술의 국산화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더욱더 정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디지털 인문교육과 중국인문학의 방향’

중국인문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국립군산대서 한·중·대만 등 3개국 90여명 학자 참여 논문 발표

2023년도 중국인문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가 10일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대학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인문학회가 주관하고 국립군산대 중어중문학과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전북대 중국·아시아연구소, 전남대 중국인문연구소, 호남대 공자학원, 제주대 상무공자학원이 공동 주최한다.

격변하는 대학 교육의 현장과 고도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중국인문학이 당면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이고, 디지털 인문교육

과 중국인문학의 방향을 주제로 한국, 중국, 대만 등 3개국 90여 명의 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4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단국대 안희진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제 1부가 시작되어, 제2부에서는 총 7개 분야의 현장 발표와 온라인 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김계태(국립군산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기획학술위원장은 “국립군산대학교는 뉴딜시대의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디지털과 인문학을 연계하는 융합학문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7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으로 선정되었고, 디지털교육과 융합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국제학술대회 주제에 더욱 부합되는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인문학회는 1982년 출범한 이래 중국의 문화와 역사 철학 등 중국 관련 제반 분야의 연구 중심축 역할을 하는 전국 규모의 학회이다. 당면한 중국인문학 과제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연간 3회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중국인문과학’을 발간하고 있다. 2023년 12월 2일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중국인문학회와 대한중국학회가 공동주관으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